



완주마음이야기 2026. 8월호 제168호

2026년 8월호

이열치열 여름나기

메미 소리 요란하고 아스팔트마저 지글거리는 뜨거운 여름 한복판. 출하가 한창인 복숭아·포도 농가, 풀약 치는 들깨 농가와 새 집 짓느라 분주한 공사 현장, 여행자금을 모으려 지글지를 꼬치 굽는 청소년동아리까지 태양과 당당하게 맞선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전국으로 입소문 난 복숭아 농가 '신들농장'의 김도자 농부가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다.

- 양지틀 인생자서전사업단 ... 8-9P ● 삶의풍경 고산 인품마을 이기선 이야기 ... 10P
-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 12-13P ● 완주지역작가 5인의 두 번째 전시회 ... 19P

더워도 삶은 계속되는 법

무더위도 못 말려, 완주 사람들 열정은!

이열치열(以熱治熱). 뜨거움을 뜨거움으로 이겨 내듯,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에도 누군가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제철 복숭아와 포도를 가꾸고, 새 보금자리를 짓고, 여행을 향한 꿈을 위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 땀 흘린 만큼 계절을 익히고 삶을 일구는 이들의 열정은 한여름을 묵묵히 버텨내는 힘이 된다.

»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산들농장의 여름

여름 해는 유난히 빨리 뜬다. 산들농장의 하루도 그만큼 이르게 시작된다. 새벽 5시 30분, 부부는 오전 주문과 택배 물량을 맞추기 위해 1차 수확에 나선다. 9시가 넘으면 손님을 맞이하고 복숭아를 분류해서 포장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진다. 한낮 피약별은 잠시 피했다가, 해가 저무는 저녁 7시 이후 다시 밭으로 나가 2차 수확을 이어간다. 수확은 6월 말부터 8월 20일 무렵까지 두세 달 남짓이지만, 이 짧은 여름을 위해 정영만·김도자 부부는 1년 내내 밭에 공을 들인다. 김도자 농부는 “복숭아나무는 배수와 통풍이 생명”이라며 “뿌리가 50cm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 물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빨아먹지 못하면서도, 정작 물은 싫어하는 예민한 나무”라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 고랑마다 유공관을 묻고 배수 공사를 마친 덕분에 해마다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기르고 있다. 손주들에게 줄 복숭아를 사러 아침 일찍 찾아온 노부부는 “손주들 덕분에 맛있는 복숭아 싹껏 먹는 거지.”라며 웃었다. 아침부터 연달아 찾아

온 손님들 배운한 정영만 농부는 바쁜 와중에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맛있게 농사를 지어야 사 먹는 사람도 기분 좋게 먹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맛있다고 해야 나도 기분이 좋지. 그 보람이 없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농사짓겠어.”

» 들깨밭과 포도밭에서 배운 지혜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들깨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오현향 씨는 “더울 때는 오래 못 해요.”라며 웃었다. 가장 뜨거운 시간은 피하고, 해가 낮아질 때 밭으로 나서는 것이 여름 농사를 버티는 방법이라고 했다. 폭염을 이겨내는 특별한 비법보다 중요한 것은 계절의 흐름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지혜였다.

포도밭의 여름도 마찬가지였다. 뜨거운 햇살을 견딘 포도송이는 천천히 빛깔을 더하고 맛을 채워간다. 이순영 어르신은 포도의 색을 살피고, 알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며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린다.

“농사는 사람이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제맛이 나지.”

56년 동안 계절을 지켜온 이순영 어르신에게 여름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땀과 기다림 끝에 가장 달콤한 결실을 마주하는 계절이다. 들깨밭과 포도밭, 두 곳의 여름은 달랐지만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농부들의 방식은 닮아 있다.



오현향 씨가 들깨에 풀약을 주고 있다.



포도밭 옆에서 이순영 어르신이 깨를 말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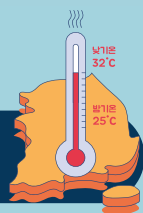


복숭아를 따는 정영만, 김도자 부부

폭염! 행동요령

폭염은 대비해야 안전한 법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야외활동 시 신체노출 최소화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잘 먹어야 힘이 나는 법

이열치열, 건강한 여름 한입!

무더위에 지칠수록 몸은 수분과 영양을 더 필요로 한다. 뜨거운 음식으로 땀을 내 몸의 순환을 돕는 '이열치열'도 좋고 제철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며 더위를 식히는 것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올여름, 제철 음식과 함께 시원하고 활기차게 더위를 이겨보자.

백숙

단백질과 영양을 보충해 기력을 회복하는 대표 보양식

●운주계곡금당가든

대표 메뉴 백숙(70,000원) | 닭볶음탕(70,000원)

주소 운주면 금고당로 65-6



추어탕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한다.

●정가는 추어탕

대표 메뉴 추어탕+돌솥밥(10,000원)

주소 삼례읍 삼례역로 18 1층



장어구이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A가 풍부해 여름철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

●일오삼고창풍천장어

대표 메뉴 숯불고창풍천장어(시가)

주소 삼례읍 삼례역로 133-1





용진 복숭아 농가 산들농장 정영만·김도자 부부

“전국에 입소문 난 달콤함 이 땀방울로 익었죠”

완주군청 뒤편 도로변 한쪽에 셋길이가 있다. 셋길 안으로 들어서면 색색깔 바람개비가 반기고, 언덕 하나를 넘으면 3천 평 복숭아나무밭이 펼쳐진다. 별다른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전국 각지에 복숭아를 실어 보내는 산들농장이다. 이곳을 24년째 지켜온 정영만(71)·김도자(66) 부부는 요즘 달콤함이 정점에 이른 복숭아를 출하하느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김도자 농부는 “토양이 좋아서 나무가 잘 자라고 당도도 높다 보니 단골손님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며 “도로변에 세워둔 간판이 크지 않은데 그걸 보고 지나가다 들르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산들농장 복숭아는 크게 천도, 황도, 천중도(백도) 세 가지로 나뉜다. 천중도라는 이름은 옛날 선녀가 먹던 복숭아라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맛있는 복숭아는 자고로 베어 물었을 때 물이 줄줄 흘러야 한다”는 게 부부의 철학이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물복과’로, 당도가 높은 복숭아는 자연스레 물이 많다고 한다.

복숭아를 많이 수확하다 보면 벌레가 살짝 먹거나 흠집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과, 즉 ‘기스’라 불리는 복숭아도 나오는데 색이 변한 부분만 떼어내면 맛은 일반 열매와 똑같아서 일부러 파과만 찾는 단골도 많다. 도자 씨는 “다른 농장은 파과 뺄처리하느라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다”며 “예약 안 하고 오면 허탕 치기도 한다”고 웃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나와 복숭아를 따고, 한낮 띄약별은 잠시 피했다가 해가 저물면 다시 밭으로 향하는 게 요즘 부부의 일과다. 이렇게 판 복숭아를 앞에 두고, 여름철 산들농장은 복숭아 사러 왔다가 의자에 앉아 파과를 깎아 먹고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손님들로 늘 북적인다. 정영만 농부는 “농장을 찾은 손님들과 떠들며 놀고, 복숭아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다”며 “돈도 돈이지만 손님들이 만족스러워야 나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부부의 바람은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밭에 나와 손님들에게 드릴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하는 것이다. 🍑



직접 수확한 복숭아를 들고 웃는 정영만, 김도자 부부

복숭아 맛있게 먹는 법

농부의 꿀팁! 냉장고 속 복숭아는 30분 실온에 뒀다 드세요

겉모습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둥그렇게 예쁜 복숭아를 골라야 한다. 윗부분이 불그스름하고, 아랫부분이 연한 색을 띠면 잘 익은 복숭아다. 구매 후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 숙성하고, 먹기 30분 전에 실온에 두고 기다렸다가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냉장고에 있는 동안 복숭아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온에 놓고 30분 기다려서 수분이 빠진 후에 먹어야 더 단맛이 돈다.

포도와 함께 송알송알 56년 “왕포도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

추동마을 왕포도 농가 **이순영** 어르신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 모두가 시원한 곳을 찾는 시간에도 봉동읍 추동마을에서 포도를 판매하는 이순영(82) 어르신의 하루는 분주하다. 스물여섯 살에 봉동 은하리로 시집와 포도농사를 시작한 지 56년. 여름은 가장 덥지만 포도가 가장 맛있게 익고 손님들의 발길도 가장 잦은 계절이다.

젊은 시절에는 500평 규모의 포도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3년 전부터는 규모를 200평 정도로 줄였지만 여전히 포도를 키우고 수확한 포도를 은하리에서 판매하며 농사와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24년째 함께한 원동기 오토바이에 오른다. 포도를 수확해 옮기고 집과 밭을 오가는 일까지 어르신의 농사에는 늘 오토바이가 함께한다. 오랜 세월 달려온 오토바이는 이제 어르신의 든든한 발이자 여름 농사의 든든한 동반자다.

이순영 어르신이 판매하는 품종은 ‘왕포도’다. 뜨거운 여름 햇볕을 머금은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말한다.

“휴가철인 지금이 제일 맛있지. 추석 때까지도 팔지만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이 많아지고 단맛만 남기만 해.”

무더위 속 농사일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틈틈이 쉬어가며 포도를 돌본다. 하지만 여름 포도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수확과 판매를 이어간다. 수확한 포도는 은하리에서 직접 판매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단골 손님들이 완주 곳곳에서 찾아오고, 아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나누며 정을 이어 가고 있다. 예전에는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도 출하했지만 지금은 단골손님들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이번 주에 수확한 포도는 오늘, 내일까지만 팔고 조금 쉬어야지. 힘들어서 쉬면서 해야 해.”

하지만 쉬는 날에도 손을 놓는 법은 없다. 포도뿐 아니라 고추, 참깨, 배추 등 먹을거리 농사도 대부분 직접 짓는다. 겨울이면 직접 키운 배추로 김장까지 해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며 정을 이어간다. 폭염을 견디며 키워낸 올해 포도는 단골손님들의 발길 속에 하나둘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56년 동안 이어온 농사의 시간은 잘 익은 왕포도 한 알 한 알에 담겨 있다. 여름 햇살 아래 익어낸 달콤한 포도처럼 이순영 어르신의 부지런한 손길도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 포도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수확과 판매를 이어가는 이순영 어르신

손주들과 함께 할 잔디밭 캠핑을 그리며

새집 짓는 김성원 씨



땅 다지고 벽돌 쌓는 허드렛일을 하며 매일 집 짓는 현장에 발 도장을 찍고 있는 김성원 이장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만난 울소리 김성원(66) 이장. 여름 햇볕에 붉어진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조만간 완성될 새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집을 새로 짓기로 한 건 일 년에 두어 번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올 때,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집 구조와 앞마당 용도 등 새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은 가족회의로 정했다. 마당의 오래된 감나무를 살릴지 뽑을지도 투표에 부쳤는데, 아들과 아내는 뽑자고 했지만 김 이장과 두 딸이 그대로 두자고 해 2대 3으로 고목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는 “오래된 나무일수록 오히려 열매 맛이 차원이 다르다”며 웃었다.

집을 짓기 시작한 지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건축사무소에 전문적인 설계를 맡기고, 필요한 단계마다 아는 기술자들을 불렀다. 김 이장도 땅 다지고 벽돌 쌓는 허드렛일을 하며 매일 현장에 발 도장을 찍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들도 각자 기술을 살려 힘을 보탰다. 그는 “집을 짓는 동안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발품을 팔며 조언해 주고 직접 와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지대가 낮았던 옛집 자리를 높이고 땅을 탄탄히 다진 새집은 뒤로 산과 하늘이, 앞으로는 마을의 고요한 전경이 보인다. 24평 남짓한 공간에 방 두 개를 제외하곤 거실을 넓게 텅고, 마당엔 잔디를 깔고 화단을 조성해 텃밭을 가꿀 계획이다. 캠핑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노는 모습을 그려본다.

9월 준공을 앞둔 새집에 대해 김 이장은 이렇게 바랐다. “사람이 늘 거주하고 살뜰히 돌보는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훈기가 느껴진다고 해요. 새집도 누가 언제 찾아오더라도 훈훈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행 생각에 설레는데 이깃 불 앞 구슬땀쯤이야!

청소년센터 고래 여행동아리 마구노라쓰

8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완주미디어센터 청소년센터 고래에 중학교 3학년 유민준·박찬영·정서윤·최정민 학생이 모였다. 이날 저녁 열릴 심야 영화상영회에서 팔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2011년생 청소년 12명으로 구성된 여행동아리 ‘마구노라쓰’의 회원인 학생들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다.

기존에 판매하기로 했던 찹쌀수수 대신 염통꼬치로 메뉴를 바꿨다. 간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시험 삼아 구워보고, 아이스티와 레몬에이드도 재료 비율을 여러 번 바꿔가며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냈다. 준비하는 손길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해가 채 지지 않은 오후 6시, 무더위 속에서 미디어센터 입구 앞에 1일 판매 부스가 열렸다. 천막 아래에서도 바깥 열기와 그늘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더해져,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방울이 맺혔다. 그래도 학생들은 손님을 맞이하며 염통꼬치를 굽고, 음료를 따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찬영 학생은 “조금씩 경비가 채워질 때마다 무척 뿌듯하다. 올해 꼭 목표 금액을 채워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이 될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완주미디어센터 로비에서 심야 영화상영회에서 팔 꼬치를 굽고 있는 마구노라쓰 동아리 회원들



남편이 아픈 뒤로 4년째 홀로 농사 짓고 있는 오현향 씨가 풀약을 치고 있다.



10월 수확을 기다리며 혼자 힘으로 200평 들깨 농사

30년 농사의 힘 **오현향 씨**

6일 오전 10시. 이미 햇별은 머리 위에서 내리쬰고 있다. 봉둥을 울소리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오현향(60) 씨는 초록빛으로 자란 들깨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작물의 상태를 살폈다. 남편과 함께 가꾸던 200평 들깨밭은 이제 4년째 그의 손으로만 이어진다.

7월 초 심은 들깨는 지금 한창 자라는 중이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손으로 풀을 매고 밭을 돌봤지만 남편이 몸이 아픈 뒤부터는 혼자 농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200평 들깨밭을 이틀 만에 혼자 심었고 풀을 뽑고 약을 치며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수확은 10월쯤이며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먹는다.

들깨밭 한편에는 넓은 창고형 작업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농사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마련한 곳이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면서 그 계획도 멈춰 섰다. 지금은 지인들이 대형 트랙터 두 대를 세워두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오현향 씨는 농약과

농기구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창고에는 이루지 못한 계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깨가 다 죽었어요. 올해는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는데 10월까지 무사히 키웠으면 좋겠어요.”

현향 씨의 하루는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다. 더위를 피해 새벽부터 일을 하고 이날도 밭일 시작 전, 아프다는 고모를 대신해 고추를 두 시간가량 따주고 왔다. 농촌에서는 서로의 일손을 보태며 살아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그는 예전에는 벼와 고추도 재배했지만 지금은 들깨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쉬운 농사는 없지만, 고추를 해보니 들깨가 그나마 나아요.”라며 웃었다.

혼자 밭을 지키는 네 번째 여름, 그는 오늘도 묵묵히 들깨가 무사히 익어갈 10월을 기다리고 있다. 

2년 차 농촌돌봄농장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허브 향으로 이끌어낸 이해와 존중



라벤더 수확을 마친 참여자들과 그라스팜 정시주 대표, 이현희 이사가 함께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싱그러운 허브 내음이 은은하게 감도는 봉동의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이하 그라스팜)'은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향기 농장이다. 아로마테라피스트였던 이현희 이사가 직접 밭으로 나가 허브 농사를 시작한 이곳은, 다양한 허브를 친환경으로 길러내며 일상에서 향기가 주는 위로를 이웃과 나누고자 한다. 작년부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용진노인복지센터와 인연을 맺어온 그라스팜은 올해 마음사랑병원까지 품으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 회복자, 지역 어르신을 아우르는 돌봄 농업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다.

» 허브밭에서 만난 세 갈래 이웃

텃밭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밭을 누비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함께해온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 올해 부쩍 인원이 늘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의미를 배워가는 이들 사이로, 용진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걸음도 분주했다. 호미질하던 차영숙 어르신은 "몸이 힘들어도 농장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웃었다. 소영자 생활지원사는 "처음에는 조용히 참여하시던 어르신께서 지

금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고맙다'고 말씀하신다."며 그라스팜을 통해 달라진 참여자들의 모습을 전했다.

올해 처음 문을 두드린 마음사랑병원 참여자들은 농장 풍경이 아직 낯설지만,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조금씩 적응 중이다. 이현희 이사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는데, 꾸준히 만나다 보니 조금씩 신뢰가 쌓이고 있다"며 "참여자 그룹별로 분리되어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통해 각자의 속도에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 어르신, 정신질환 회복자가 한 밭에서 마주치고 교류함으로써 자연스레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그라스팜이 맞은 올해의 가장 큰 변화다.

» 결과보다 과정, 체험보다 농사

그라스팜의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짜지 않는다. 이현희 이사는 "사회적 농업의 가치와 실제 농사일 자체를 중심으로 두려 한다"고 말했다. 허브를 심고 가꾸는 데서 시작해 향과 맛을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법까지 익히도록 구성한 이유다. 다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둔다.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한 농작업으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



[농장 정보]

- 대표자 정시주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881-33
- 휴무일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 연락처 010-5503-3721



로 성취감을,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 회복 참여자들에게는 각자의 속도에 맞춘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우도록 돕는다. 경천면과 화산면 등 지역 내 소외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게 사회적 농업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허브 수확철이면 참여자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남긴다. 매주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라고 꼼꼼히 확인하며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에 푹 빠진 참여자도 있다. 처음엔 낯선 작업에 부담을 느끼던 이들이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사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이 이사는 이를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 농장이 동네 사랑방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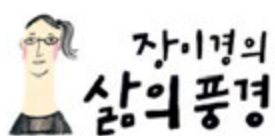
그라스팜은 농장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허브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완주군장애인복지관과 용진노인복지센터, 마음

사랑병원은 물론 지역의 더 많은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 회복자, 지역 어르신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웃들이 이 허브밭에서 자연스레 만나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그래서 농장이 사람과 지역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그라스팜은 오늘도 바란다. 🌱



이현희 이사,
정시주 대표



구멍 난 양말을 기우거나 셔츠에서 떨어진 단추를 다시 달려면 반드시 실과 바늘이 필요하다. 여전히 장롱이나 서랍 한구석에 반질고리가 자리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옷이며 양말이며 뭐든 물자가 풍부해진 요즘 시대에 어지간해선 반질고리를 꺼낼 일이 없다. 하물며 바느질로 옷을 짓거나 이불을 꿰매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 버렸다. 그런 만큼 고산면 양아리에 사시는 이기선 할머니(41년생)의 바느질 자부심은 대단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달린 흰 코바늘 커튼도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다.

“김제 금산면 청도리에 백운동이라고 있어.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그 동네 언니네 집에 가서 바느질, 뜨개질을 배웠지. 우리 엄마가 나 17살에 돌아가셨거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 언니한테 ‘우리 기선이를 좀 뭐시든지 가르쳐라’ 그런 소리를 했드려야. 그 소리 하시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 그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엄청 꼼꼼해서 토시고 조끼고 딱 맞아야 입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옷 해 입고 다니는 걸 보고 자랐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옷매무새를 깔끔하게 다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했지. 내가 손은 고와. 어려서부터 흙은 안 만져봤어. 시집와서도 그렇고 평생 바늘만 잡았지. 생각해 보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 애들 아버지도 나 험한 일 안 시켰거든. 나 시집와서 남의 두루마기 하나 꼬매주면 6일을 와서 받을 매줘. 그렇게 일종의 거래를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시집와서 고생 안 했어. 빨래도 빨려 안 가고 밭도 매려 안 가고 그랬어. 시누들이 우리 밭 일 해주는 대신 나는 그네들 바느질을 다 해줬지. 예전에는 동네마다 자방침 장수가 돌아다녔어. 시집와서 산 이 자방침을 여태껏 쓰고 있어.”

두루마기 한 벌을 꿰매주는 대가로 6일 동안 밭을 매주는 노동을 서로 교환한 셈이다. 바느질을 잘한다는 것은 그 시절에 일종의 고급 기술이었을 것이다. 그는 재봉틀을 ‘자방침(재봉틀의 방언)’이라고 불렀다. 미싱이라는 말은 재봉틀을 영어로 소잉 머신(Sewing Machine)이라고 하는

약방집 딸내미의 바느질 자부심의 내력

고산면 인풍마을 이기선 할머니 이야기



데 일본에서는 머신(Machine)을 미싱이라고 줄여 불러서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한때 미싱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았나 싶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와 온 가족이 김제 백운동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다 당시에는 다소 늦은 나이인 스물일곱에 이곳으로 시집을 오게 됐다고 했다.

“결혼이 늦은 편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같이 있으려고 안 가고 있었지. 아버지가 원체 대쪽 같아서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 시집와서도 친정 가서 아버지 이불 빨아놓고 옷 빨아서 꼬매 놓고 그랬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은 집에 여의고 가셨지. 선보러 오는 사람이 사주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주도 좀 잘 보고 그랬거든. 가만히 보더니 우리 기선이 켜려 죽이지는 않게 생겼드려야. 순해서. 아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참 많이 맞고 살았잖아. 나는 한 번도 안 맞고 살았어. 애들 아빠 이름은 성귀학, 우리 큰 딸이 수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서 수향이 아빠, 엄마라고 불러. 나는 다음에 태어나도 수향이 아빠랑 살고 싶어. 참 착하고 순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싸낙배기였어. 우리 수향이 아빠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어. 대신 나서서 먹살 잡고 흔들고 그랬지. 언젠가는 우리 수향아버지를 건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몇 날 며칠 찾아다녔어. 나 혼자 가서 6일 만에 잡아서 엄청 뭐라고 했지. 술만 먹으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그 뒤로 몇 달 만에 와서 죄송하다고 빌더라고. 암튼 나는 그런 꼴은 못 봐. 우리 주인양반 건들면 누구라도 가만히 안 뒀어. 수향이 아빠 돌아가신 지 6년 되는데 내가 밋을 못내. 신랑 죽었는데 밋 내고 다닌다는 소리 들을까 봐. 옷도 함부로 못 입겠더라고. 원래 멋쟁이야. 여름에는 내가 만든 모시 적삼 입고 장날에 나가면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 ‘하이고 저 옷 해 입은 거 봐. 부잣집 마나님 이네.’ 그런 소리가 들려.”

이기선 할머니의 바느질에 대한 자부심은 참 대단했다.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호랑이 선생님 같다가도 직접 손으로 꿰맨 모시 이불을 펼쳐 놓고 ‘자 이거 좀 봐’ 할 때는 아이 같은 미소가 얼굴에 가득 담겼다.

“이 모시 이불은 다 손으로 꼬맸 거야. 이것을 자방침으로 박으면 모시가 뻗뻗한 게 걸리석 거려. 손으로 감쳐서 꼬맸다고 하면 다 깜짝 놀라. 나는 어디 놀러 안 다녔어. 마을회관을 통 나갈 수가 없어. 방 안에 앉아 늘 바느질을 했으니까. 어



시계방향으로_ 할머니의 고운 손길이 거쳐간 저고리. 걸리적 거리는 곳 없이 섬세하게 손으로 꿰매야 한다. 직접 코바늘로 뜬 옷들. 이렇게 입고 봉둥 장날에 나가면 고고한 부잣집 마나님같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할머니와 함께 해온 자방침

려서부터 아버지 옷매무새 정리하면서 바느질이 손에 익은 거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약을 좋은 놈으로만 지어. 탁 나고 버리지 나는 것은 다 앉아서 개려. 참 정성스러운 분이셨지.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나한테 늘 착하게 살아라. 넘 한테 속 뺏기지 말아라. 속 뺏기면 절대 못 찾는다. 그 소리를 많이 하셨지. 나 시집와서 우리 애들 아빠랑도 아들딸 키우면서도 그 소리 하는 것이 일이었지. 속 뺏기면 절대 못 찾는다. 자기중심을 잡고 살라는 뜻이여. 괜히 돈에 현혹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아들딸을 다 그렇게 가르쳤어.”

이야기하는 내내 할머니는 직접 바느질하거나 뜨개질해서 만든 핸드백이며, 옷이며 이불들을 펼쳐서 보여주셨다. 나 혼자 보기가 아까웠다.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해도 좋을 생활 속 작품들이다. 할머니의 바느질 기술이 아까워 누군가에게 가르칠 생각이 없냐고 여쭙는데, 누가 이 성가신 일을 배우겠냐고, 혹시 나보고 배울 거냐고 되물으셨다. 바느질에 그닥 소질이 없는 나는 “혹시 바느질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하고 물었다. 그냥 실이랑 바늘만 있으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하냐고 장인다운 전문답을 하시기도 했다.

“나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 없어. 이것들을 못 버리겠어. 내 소중한 보물이야. 진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것들이 다 이것이지. 그리고 6남매 다 착하게 커 준 것. 그런 것이 참 좋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 아들 딸 전부 순하고 며느리 사위들도 참 좋아. 그래도 나는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내 집에서 사는 거야. 마음을 비우고, 6년 전에 주인 양반 먼저 떠나고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애들 아빠 죽기 3년 전에 실컷 자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라고 그랬어. 그때 그 양반이 원 없이 놀러 다녔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어.”

바느질과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차분하고 진득하다. 뭐든 빠르게 변하는 지금에 새겨볼 만한 덕목들이다. 그리고 보니 내 주변에는 바느질과 뜨개질 고수들이 꽤 있다. 이기선 어머니가 자신의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다. 17살의 어린 이기선이 동네 언니에게 바느질을 전수 받았듯이, 고운 모시천으로 내 몸에 꼭 맞는 옷 한 벌을 손수 지어 입고 싶은 사람들 손 드세요, 함께 잡시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

“당신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글로 남겨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와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이 함께 추진 중인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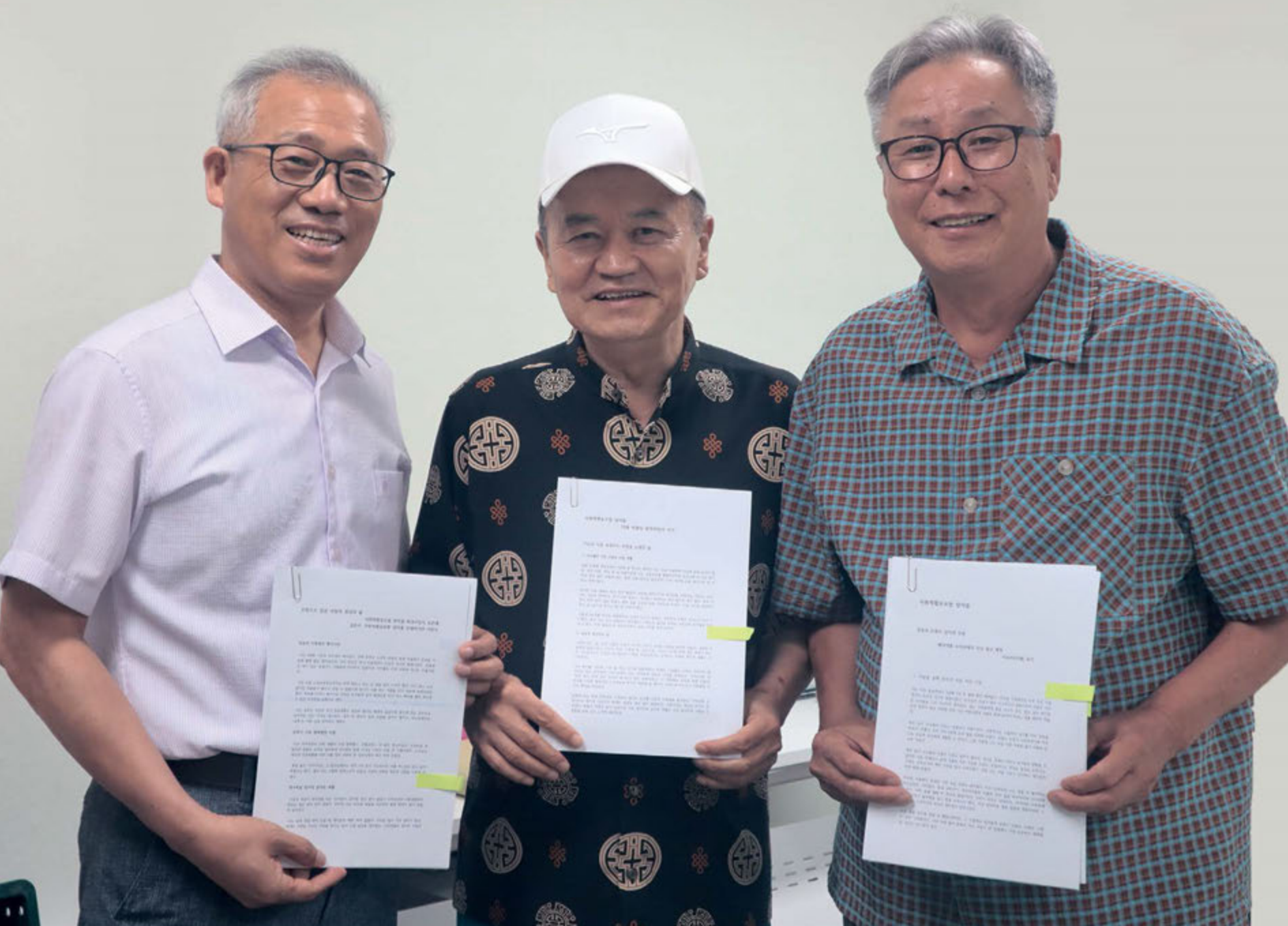
글쓰기 역량을 갖춘 시니어 활동가들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살아온 이야기를 청취하고 수기나 자서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상자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한 경험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김종인 팀장은 “어르신들의 삶 속 경험을 찾아내, 글로 옮겨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양지뜰이 완주군 내 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글쓰기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세 분을 선발해 사업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들 김종인 팀장과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 활동가들이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회의 중이다.

» 마음을 열고 한 장씩 채워가는 시간

어느덧 4개월 차, 그간 활동가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삶, 홀로 자녀를 키운 이야기, 어려움을 이겨낸 여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작가로서의 활동에 익숙해지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는데, 그들은 “마음을 열고 흔쾌히 이야기를 들려줄 대상자를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삼고초려 끝에 인터뷰 승낙을 받아내더라도 약속 당일 부재 중이거나, 번번히 사전 질문지에 답을 적지 않아 다섯 번이나 찾아간 경우도 있었다. 수취화된 정보를 얻는 기계적 설문이었다면 훨씬 수월했겠지만, 수기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기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관계를 맺는 과정이 필요했다.

어떻게 하면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 안의 반짝이는 조각을 어떻게 다듬을지 고민하는 동안 활동가들만의 노하우가 쌓였다. 유신봉 활동가는 “짧은 만남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며 “사전 질문지로 깊은 질문을 건네고, 망설이는 상대를 ‘좋은 기억만이라도 정리해보자’며 다독인다”고 말했다.

채집한 구술 자료로 초고를 작성한 후에는 대상자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했다. 글씨가 작아 못 읽는 대상자를 위해 큰 글자로 인쇄해 함께 읽으며 완성본을 서너 번씩 확인해 다듬기도 했다. 미답잖아 하던 사람들도 완성된 글을 받아보곤 표정이 달라졌다. 힘겨웠던 생을 돌아보며 눈물짓는 이도 있었고, 기록으로 남겨줘 고맙다며 밥을 사줬다 청하는 이도 있었다. 대상자가 고마운 마음에 밥을 사면, 다음에는 활동가들이 밥을 사겠다고 약속을 잡으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낯선 만남으로 시작된 인터뷰가 따뜻한 인연으로 남은 것이다.

왼쪽 사진_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 활동가들이 완성된 원고를 들고 웃고 있다. 왼쪽부터 유병주, 유신봉, 이만수 활동가

» 마침표 대신 쉼표, 다음 장을 준비하며

활동가 1인당 월 1~2건씩 꾸준히 활동하며, 지금까지 수기 15건, 자서전 4건이 완성되었다. 8월부터는 4쪽 분량의 수기보다 깊이 있는 자서전 위주로 전환해, 한 달에 한 건씩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인 실무자는 “8월까지의 작업물을 책자로 엮어내어 사업 참여자들에게 선물하는 1차 전달식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월남전과 6·25 참전, 훈장 수훈자처럼 지역에 기여한 이들의 이야기도 찾아내 지역 기록유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 시범사업은 2027년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활동가는 “이 사업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기분이다. 앞으로도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상자와 인터뷰 중인 작가들

[문1답]

Q.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에게 자서전이란?

- 유병주 활동가: “자서전은 그동안의 삶의 목표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읽었을 때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지침서’ 같은 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고민하는 분께 한마디

- 유신봉 활동가: “기다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 이만수 활동가: “누구든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쁜 것 말고, 즐겁고 좋았던 기억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인생 기록 서비스



내 인생을 글로 남기고 싶지만 막상 쓰려면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신청만 하면 시니어 대필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글로 정리해 드립니다. 60세 이상이면 간단한 면담을 거쳐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부모님이나 지인의 이야기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신청 후 작가와 1:1 연결 → 사전 질문지 작성 → 대면 인터뷰 → 원고 집필 → 검토 및 수정 → 수기 또는 자서전 완성

신청 문의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들 ☎ 063-291-3004

완주 청년서예가 가은 김채리 개인전

〈결을 따라〉

가은 김채리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 〈결을 따라〉가 8월 16일까지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2전시실에서 열린다.

완주에서 나고 자란 김채리 작가는 ‘채리캘리’ 대표이자 서예 강사로 활동하며, 2026년 완주 예술인 작품 공개구입에 선정돼 작품 「차가운 향기」가 완주문화관광재단에 소장되기도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고향 완주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 제목의 ‘결’은 붓이 지나간 흔적이자,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가의 마음결을 뜻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전각까지 붓과 먹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담은 한글서예 「너의 때가 온다」, 연꽃이 피고 지는 모습으로 인생의 흐름을 표현한 문인화 「연꽃 만나러 가는 길」,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돌에 새긴 전각 「부모님의 은혜」가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을 맞아 부채 작품도 특별히 선보인다.

김채리 작가는 “마음에 와닿는 글귀와 소재를 골라 작품으로 옮기면서 얻은 위로와 평안을 관람객과 공유하고 싶다”며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시며 작품에 담긴 마음과 시간의 결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간: 2026. 8. 10.(월)~8. 16.(일) / 9:00~18:00

• 장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19,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2전시실



위_ 문인화 대표작품_연꽃 만나러 가는 길_203x306cm
아래 왼쪽_ 한글서예 대표작품_너의 때가 온다_66x33cm
아래 오른쪽_ 부채 대표작품_등꽃향기



전각 대표작품_부모님의 은혜_50x30cm 앞에 선 김채리 작가

예술인마을 오픈 기획전시

**양생원,
완주하다**



윤대라 작가展

2026. 7. 21. TUE ~ 2026. 10. 20. TUE

삼례문화예술촌 예술인마을II 전시체험관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검제,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장강명 씀 | 글항아리 | 2026 | 360쪽 | 19,500원

“과정이 중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한 번은 체험해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965년생 가수 이승환은 전국투어 공연을 앞두었을 땐 양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으로 유명했다. 60살인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가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어린 시절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선 ‘체력’의 의미를 번뜩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치, 뭐든지 체력이지.

읽기에도 체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모래주머니의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벽돌책’ 아닐까 싶다. 일단 두께부터 살벌하고, 무게는 그에 걸맞게 잔뜩 무겁다. 개인적으로 벽돌책의 기준은 700쪽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그 정의는 다를 것이다.

〈살면서 한번은 벽돌책〉은 〈한국이 싫어서〉, 〈먼저 온 미래〉가 대표작인 작가 장강명이 직접 100권의 벽돌책을 읽고 정리한 목록이자 서평집이다.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벽돌책의 목록들과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계속 생각만 하며 버리고 있는 벽돌책, 생전 처음 보는 벽돌책도 있어 목차만 봐도 배부르다. 특히, 식사와 야식, 군것질과 디저트를 추천하듯 문학, 사회, 과학,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골라 읽어볼 수 있는 도서 목록을 추천한다. 물론 모두 벽돌책이다.

200쪽짜리 4권과 800쪽짜리 1권은 총 쪽수는 같겠지만, 책이 가진 사유의 밀도가 다르다. 무엇보다 해당 도서를 읽어 내기 위해 필요한 독자의 ‘지적 지구력’ 수준이 다르다.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로 읽어 ‘내려가는’ 파편화된 정보들과 작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긴 텍스트 구조를 파악하며 읽어 ‘나아가는’ 행위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없다. 떨어지는 일과 밀고 나아가는 행위 사이에 분명 다른 힘이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 읽어도 읽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 벽돌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지적 근력과 감각이 생성된다. 요즘 당신의 읽기는 어떠한가.

장강명은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을 읽어보라 권하지만, 사실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번이 어렵지 모래주머니를 떼고 달릴 때의 쾌감처럼 그 다음은 한결 가볍고, 기꺼이 즐거운 행위가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요즘 화제적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 개봉에 맞춰 원작 〈오뒷세이아〉를 읽어봐도 좋겠다. 시작으로 딱 좋은, 672쪽이다.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86 스스로 어른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달빛 아래서 다시 시작되는 생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32) 스트라이샌드의 「기억 Memory」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기억은 낮과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낮에는 애써 잊고 지냈던 사람과 떠나보낸 시간, 한때 빛났으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생의 한 장면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뮤지컬 《캣츠》의 「기억」은 바로 그 밤의 시간에 피어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지난 간 날을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존재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노래, 기억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재생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캣츠》는 T.S. 엘리엇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하고 트레버 넌이 연출한 뮤지컬입니다. 1981년 런던에서 초연되었으며, 그 가사는 엘리엇의 「바람 부는 밤의 광시곡」과 「전주곡들」에 나타나는 밤거리와 기억의 이미지를 변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뮤지컬의 중심에는 늙고 초라해진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있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는 더 넓고 찬란한 세계를 꿈꾸며 공동체를 떠났다가 상처 입은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젤리클 고양이들은 그의 남루한 모습을 경멸하며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자벨라는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홀로 밤을 건넌다. 빛바랜 털과 불안한 걸음, 한때의 우아함을 어렴풋이 간직한 몸짓은 세월이 패배한 한 존재의 초상처럼 보입니다.

그가 부르는 「기억」의 첫머리는 고요합니다. 달빛 아래 거리는 텅 비었고, 낙엽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가로등은 곧 꺼질 듯 흔들립니다. 이 풍

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황폐한 밤거리는 곧 그리자벨라의 내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화려했던 젊음도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기억뿐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따뜻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잔인한 형벌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재의 고독이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로이드 웨버의 선율 역시 이러한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노래는 낮은 음역에서 망설이듯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침묵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찾는 듯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선율은 높아지고 화성은 넓어집니다. 마침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면 노래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호소가 됩니다. “나를 만져 달라”는 간절한 호소는 육체적 접촉을 바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나를 밀어내지 말고, 아직 살아 있는 존재로 인정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이때 어린 고양이가 먼저 그리자벨라에게 다가갑니다. 계산도 편견도 없는 작은 손길은 늙은 고양이의 몸에 닿자 다른 고양이들도 비로소 그를 받아들입니다. 이 짧은 접촉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구원은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외면받은 이를 바라보는 눈길, 더럽고 초라해진 몸에 내미는 손길 하나에서 시

작됩니다.

무대에서 그리자벨라 역을 처음 맡은 일레인 페이지의 노래가 극중 인물의 비참함과 절박함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기억」은 이 노래를 한 인간의 보편적인 생애로 확장시켜 줍니다.

스트라이샌드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제된 호흡과 정확한 발음, 낮고 차분한 음색 속에는 오랜 세월을 건넌 사람의 품격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래가 고조되면 목소리는 서서히 커지며, 개인적인 회상을 넘어 삶 전체를 끌어안는 듯한 장엄함에 이릅니다. 무대 위 그리자벨라가 “나를 받아 달라”고 호소한다면, 스트라이샌드는 “상처 입은 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비애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는 데에 그녀의 해석이 지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 마음속에 하나의 그리자벨라를 품고 삽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실패와 후회, 늙어가는 몸과 잊힌 이름이 있습니다. 노래는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기억하고, 충분히 슬퍼한 뒤 다시 새날을 맞으라고 합니다. 상처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상처 난 존재를 다시 공동체의 품으로 데려오며, 깊은 밤을 통과한 사람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기억하라. 그러나 기억 속에서 무너지지 말라. 새벽이 오면 해바라기 위에 이슬이 맺히듯, 너의 생도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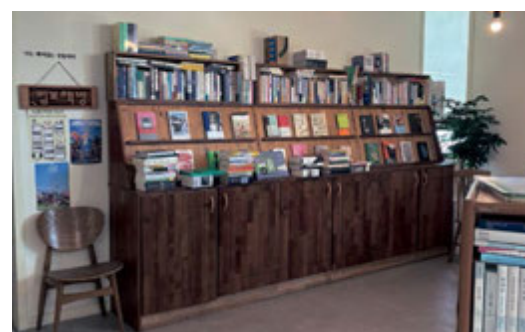
마을 소식

고산 '림보책방' 재오픈 감사 행사 “헌책, 커피로 바꿔드려요”

약 2년 간의 휴식과 재정비를 마치고 문을 연 고산의 림보책방이 책장에 꽂아만 두고 있는 책들을 가져오면 아메리카노 한 잔과 바꿔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책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책이나 너무 오래된 책, 자비로 출판한 도서는 교환이 어렵다.

고산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책과 커피, 친구와 이야기가 있는 림보책방에 놀러 가보길 추천한다.

- 행사 기간: 2026년 9월 30일(수)까지(1일 1인 1회)
- 위치: 완주군 고산면 70-6 2층, 매일 11:00 ~ 21:30
- 인스타그램: @limbobooks



더위를 이기는 법

농/촌/별/국



차 남 호

긴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늘어지게 자고 일 어났는데도 여독이 풀리지 않은 느낌이다. 고산권 벼농사두레(벼두레)의 1박 2일 백중놀이 뒤끝이다.

김매기를 비롯해 고된 벼농사가 일추 마무리되는 7월 중하순이 되면 해마다 '양력백중놀이'라는 이름으로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보통은 물가나 계곡의 음식점을 찾아 백숙 같은 보양식을 함께 먹고 짧은 물놀이를 더위를 식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는 '캠핑 축제'로 판이 확 커졌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 아래, 풀벌레 소리 들으며 한여름 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자는 게 준비팀이 내건 기획취지. 그래서 <별두레 백중놀이>란다. 하지만 이 삼복더위에, 그것도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우고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는 극한폭염 속에?

한편으론 이해되는 구석이 없지 않았다. 행사가 열리는 동상계곡은 소문난 두메산골. 인근지역과 견줘 기온이 3~4도 낮을뿐더러 밤에는 긴팔 옷을 입어야 할 만큼 선전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어쨌거나 다섯 시가 되어가자 그렇게 '뉘인' 마흔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 한 건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아무리 동상계곡이라도 37도를 넘긴 폭염을 어찌지 못한 것이다. 여기저기 틀어 둔 대형 선풍기, 사람들은 그 앞에서 더운 바람을 맞으며 절절매야 했다.

해가 저물어 사위가 어둑어둑해지자 그 더위 속에 모닥불(캠프파이어)에 불이 붙고, 커다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 열기에 더위가 흠뻑 물려선 것일까. 사람들의 눈빛도 반짝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앞전구 줄조명에 미러볼과 사이키 조명까지 현란한 빛잔치까지 더해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캠핑장은 거대한 춤판으로 돌변했다.

이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 얼얼한 분위기에 사람들은 더위를 까맣게 잊은 모습이었다. 사그라진 모닥불 따라 춤판도 시들해지자 이번엔 '가족오락관'을 본뜬 오락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스무고개로 사람 이름을 맞추고, 몸짓 표현만

으로 표제어를 맞추는 그 뻔한 놀이에도 사람들은 재밌어 죽는다.

한껏 달아올랐던 흥이 제풀에 사그라질 즈음 유명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보이는 라디오'가 뒤를 이었다. 한결 느긋해진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거나 주춧돌이 급히 가설한 '미니바'에 자리를 잡고 애기꽃을 피웠다. 물론 처음부터 바에 죽치고 앉은 '죽돌이'도 없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더위에 지치고, 흥에 지치고, 술기운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텐트 안에 몸을 누였다. 이 와중에도 진지한 표정으로 빙 둘러앉은 여남은 명이 있었다. '성노동'이라는 간단치 않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던 것이다. 토론 열기는 쉬 식지 않아 새벽 네 시가 가까워져야 어쩔 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튿날 아침은 물놀이 시간. 함께 따라온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곡물에 신이 났다. 어른들도 참지 못하고 풍덩. 무더위 탓에 그리 시원한 느낌은 없지만 물이면 감지덕지.

더위란 이렇게 이기는 모양이다. 누구는 '입추 매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암만해도 이 이틀 동안의 '푸닥거리' 덕분에 지 싶다. 그다음 날부터 폭염이 한풀 꺾인 걸 두고 하는 얘기다. 여전히 30도를 훌쩍 웃도는 날씨가지만, 이 정도만 해도 살 것같은 '기후위기 시대' 아닌가. /비봉 염엄마를

의회소식

예산·결산 실무부터 AI 활용까지 전문성 강화

제2차 의정연수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청남도 보령시 일원에서 '2026년도 제2차 완주군의회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군의회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교육을 맡아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째 날에는 '완주군의회에 꼭 맞는 예산·결산 실전

바로 적용하기'를 주제로 예산안 심사와 결산검사의 핵심 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예산 분석 및 심의 역량을 높였다.

둘째 날에는 '의정활동의 판을 바꾸는 AI 활용법'을 주제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료조사와 정책 분석, 행정자료 검토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 활용법을 익혔다.

성중기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는 예산·결산 실무능력과 AI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의정활동으로 더욱 신뢰받는 완주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행인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행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표전화 063-291-8448 • 팩스 063-261-8448
- 홈페이지 www.wandookong.kr
- 취재글 윤하나, 성다연
- 편집장 정혜영, 이운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8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시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상큼한 토마토 곱창밴드 만들기 ▶

기초 바느질 방법을 배우고, 토마토 모양의 원단을 활용해 나만의 곱창밴드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바느질이 처음인 참여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우며, 완성한 곱창밴드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진행정보: 8월 12일 (목) 오후 6시 30분

▶ 2시간 집중챌린지 : 오늘 끝내는 날 ▶

시원한 공간에서 다과를 즐기며 공부, 업무, 독서 등 미뤄둔 일을 각자의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집중해보는 시간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방앗간 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8월 18, 25일 (매주 화) 오후 7시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법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 나만의 비즈 팔찌 만들기 ▶

여름에 어울리는 다양한 비즈를 직접 고르고 조합해 나만의 팔찌를 만들어보는 체험이다. 색깔과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개성 있는 비즈 팔찌를 완성할 수 있다.

진행정보: 8월 21일 (금) 오후 7시

모집인원: 10명

▶ 청년 자산관리 아카데미 ▶

금융 기초지식부터 투자와 재무관리까지 배우고, 직접 실습하며 나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프로그램이다. 현명한 소비와 투자 습관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8회차 모두 참여 가능한 사람을 우선 모집한다.

진행정보: 8월 19, 26일 (매주 수) 오후 7시

모집인원: 10명

▶ AI-POT 2급 자격증 취득반 ▶

AI 프롬프트 작성법과 활용 방법을 배우고, AI-POT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10회차 모두 참여 가능한 사람을 우선 모집한다.

진행정보: 8월 18, 20, 25, 27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

▶ 청년네트워크 살롱 완충상담소 ▶

사전 문의를 신청을 통해 1:1 또는 소규모로 진행하며, 매니저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고민 상담부터 정보 공유, 일상 수다까지 원하는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함께할 수도 있다.

진행정보: 8월 22, 29일 (매주 토) 오후 2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이서 청년거점공간 ‘이서나루’

▶ 디지털 드로잉 수악화 2기 ▶

디지털 드로잉 기초부터 인스타그램 제작과 캐릭터 굿즈 디자인까지 배우며,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화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프로그램이다. 모집인원은 10~20명이며, 선착순 5명에게는 아이패드를 무료로 대여한다. 6회차 모두 참여 가능한 사람이라면 신청하자!

진행정보: 9월 4일~10월 16일 (매주 금) 오후 7시~9시

▶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 만들기 ▶

나만의 감성을 담은 레진 아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완주군민을 우선으로 선착순 선정한다.

진행정보: 8월 22일 (토) 오후 7시~9시

▶ 소중한 가족을 위한 10분케어 ▶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본 마사지 기법을 배우고, 목친 근육과 몸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방법을 익혀보는 프로그램이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완주군민을 우선으로 선착순 선정한다.

진행정보: 8월 29일 (토) 오후 2시~4시

▶ 청년 네트워크살롱, 취향 도서 공유 모임 ▶

각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가져와 서로에게 소개하고 마음에 드는 책을 교환해 일주일 동안 천천히 읽어보는 독서 모임이다. 꼭 완독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다른 사람의 취향을 통해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모집인원은 10명 이내다.

진행정보: 8월 19, 26일 (매주 수) 오후 7시~9시

주소: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공취팔취도서관 5층

문의: 063-229-323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전체 거점공간 신청은 인스타그램: @wjyc_official

완주 라이프 스토리랩 《같이의 가치》참여자 모집

완주에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완주 라이프 스토리랩 ‘같이의 가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 부부, 부모와 자녀 등 완주에 거주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주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총 5회 진행되며, 3회차에는 9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XR 버스트투어가 진행된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결실을 준비하는 여름의 한가운데 8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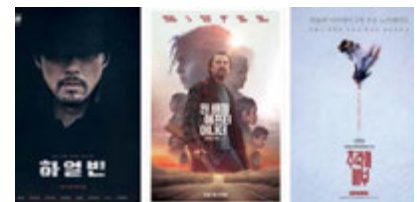
시골극장 콩씨네 8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요극장>과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8월 22일 (토) 오후 2시	하얼빈	드라마	15세 관람가
8월 29일 (토) 오후 2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범죄, 액션	15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범죄, 액션	추락의 해부	드라마
			15세 관람가



* 오싷한 심야극장

완주미디어센터에서 8월 매주 금요일 밤 9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영화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익숙한 명작부터 강렬한 호러까지, 깊어지는 밤만큼 오싷한 영화가 이어진다. 8월 14일 「감시선생」·「드라큐라」 8월 21일 「새」·「조스」 8월 28일 「주온」·「1408」 무더위는 잠시 잊고, 한밤의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제대로 즐겨보자. 입장은 무료이며, 영화는 밤 9시부터 2편 연속 상영한다.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2026 전북청년 멘토링 원스톱 서비스 ‘전북청년 멘토쥬’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법률, 기술, 투자, 마음돌봄, 진로, 마케팅, 청년정책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북 지역 전문가와 청년을 매칭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멘토링은 필요한 지원사업이나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이어지며, 참여자 1인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지역작가 5인의 개인전 종합세트

교동미술관에서 **맘대로 프로젝트** 두 번째 전시회

회화, 설치, 도자, 조형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모여 결성한 창작그룹 '맘대로 프로젝트'의 두 번째 그룹 전시 《개인전 종합 세트》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교동미술관 본관 1, 2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그룹전 안에서 작가 5인이 독립된 개인전 형식을 취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기획했다. 다섯 명의 개인전은 종합선물 세트를 열듯 한 자리에서 예술을 선물처럼 쏟아낸다. 참여 작가들은 저마다의 뚜렷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풀어낸 다채로운 신작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김현숙 작가는 앞마당을 오래 지킨 돌에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해 〈황금 시기〉를 완성했고, 여은희 작가는 채식 부산물 프로젝트에서 남은 붉은 원단과 털실을 엮어 태양과 사과를 형상화한 〈태양·꿈·사과〉를 선보인다. 임명화 작가는 낡고 해진 엉덩이 방석에서 농민의 노동과 애환을 읽어낸 〈고맙다! 엉덩이 방석〉을, 장윤정 작가는 작은 주사위 하나에서 출발해 우주의 순환으로 확장한 〈경우의 수, 그리고 나〉를 전시한다. 전설희 작가는 버려진 그릇의 파편에서 순환의 여정을 발견한 〈흙으로부터〉를 통해 소멸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한다.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시선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초가을 한옥마을 나들이 삼아 둘러도 좋을 전시다.



여은희 〈태양·꿈·사과〉
재활용원단·털실, 가변설치, 2026



장윤정 〈경우의 수 26-3(어느 사이)〉
90.9×72.7cm, Acrylic on canvas, 2026



임명화 〈내 뺨살〉
72×60cm, Acrylic on canvas, 2026



김현숙 〈시간의 층〉
80×100cm, Acrylic on canvas, 2026



전설희 〈흙으로부터〉
옹기토·황토, 가변설치, 2026

창작그룹 '맘대로 프로젝트' 전시회 정보

- 전시명: 개인전 종합세트
- 일시: 2026. 9. 1.(화)~9. 6.(일)
(관람 시간: 10:00~18:00)
- 장소: 교동미술관 본관 1, 2 전시실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9)
- 참여 작가: 김현숙, 여은희, 임명화, 장윤정, 전설희

차림축제

더-한마리

2026.11. 20.(금)
~ 11. 22.(일)
완주군미래행복센터

나는난나다

생태놀이터

함께식탁

땡땡장터

공연

함께하는 곳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더나은문화공동체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